2017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엄

2017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and Creativity

ARTISTS' WORK BEYOND ARTS EDUCATION

예술가의 작업,

교육을 넘어

미적체험교육의

진화와 확장

Evolutionary & Expanding Cases of Aesthetic Education

2017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서울문화재단은 설립 이래 수많은 예술가교사들을 양성하면서 수준 높은 예술교육과정을 시민들에게 보급해 왔습니다. 현재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예술교육에 더하여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생애주기별/맞춤형 서울창의예술교육 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술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양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술교육에 참여한 이후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높아졌고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음은 물론, 사회에 대한 인식도 보다 협력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화하였습니다. 변화는 참가자뿐 아니라 예술교육가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점점 더 많은 예술가들이 본인의 예술적 기량과에너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바라며 예술교육 분야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효과들이 비단 교육뿐 아니라 예술의 고유한 힘이자 가치인 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근래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업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변화하는 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행동주의적인 예술작업을 수행하고, 관객을 예술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시킴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교육방법론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다양한 예술가의 작업방식과 작업과정, 그리고 그보다 더욱 다양하고 고유하게 표현되는 예술작품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얻을 수 있을까요? 작품 창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시민들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예술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미적체험의 순간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서울문화재단은 이번 자리를 통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예술작품 및 작업과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는 지점을 탐구하고 예술과 교육의 분리할 수 없는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술가의 언어를 모방하고 활용하는 도구적 교육을 넘어 작품 그 자체가 학습이 되는 지점으로 예술교육의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다양한 예술창작 방식에 비추어 우리의 미적체험 예술교육의 미래에 대해 고찰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2017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and Creativit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FAC) has fostered many Teaching Artists(TA) and offered sophisticated arts education courses to citizens since its inception. Now, SFAC has expanded its scope from arts education—connected with school education—to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as well as education for the community, thereby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Arts in Education(AiE) in Seoul customized to all stages and walks of life.

Many positive changes have been observed in individuals who have participated in arts education, including improvements in creativ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ies, as well as increased self-respect and self-efficacy. Arts education courses have also been shown to affect perspective towards society, with participants becoming more cooperative and respectful of diversity. These changes impact both participants and TAs, and more artists have been entering the field of arts education with the hope of using their artistic skills and energy to help others.

This symposium focuses on the principal that such effects are not just educational values, but the strengths and values of art itself. It is not uncommon to see artists themselves undergoing change while meeting and communicating with others through their work. Artists create artistic activism that reflect social issues and involve audiences to more directly deliver their intentions. What can participants learn through experiencing an artist's method and process, which cannot be explained through a single educational methodology, to lead to works of art being expressed in diverse and unique ways? What changes occur in citizens who have actively taken part in creation? How can artists lead people into the moment of aesthetic experience?

With this symposium, SFAC aims to study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active undertaking of the artistic process and creation of art on site, as well as the correlation between arts and education. We wish to expand the scope of arts education beyond simple imitation of an artist's language and the utilization of tools so that works of art can themselves become methods of education. We would also like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contemplating the future of aesthetic educ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nd increasingly varied methods of artistic expression.



프로그램

2017. 8. 21.(월) / DDP 디자인나눔관

13:00 **1부. 미적체험교육의 진화**

등록 및 워크숍 1. Sign Making Workshop

발제 1. 교육자로서의 예술가, 학습자로서의 교육자 최태윤. 작가/교육자/활동가

발제 2. 연극교육과 그 성과; 후쿠시마현 이와키종합고교/오테몬가쿠인 고교의 실천 이시이 미치코, 드라마 티처

발제 3. 익숙한 지역, 낯설게 들여다보기; 사이타마 프론티지 윤한솔, 연극연출가

15:00 2부. 미적체험교육의 확장

리셉션 및 워크숍 2. Mixfruit Juice

발제4. 부족한 즐거움의 초대; 마석동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믹스라이스, 프로젝트 그룹

발제5. 몸의 인류학; 춤을 통해 삶의 역사를 보다 퍼포먼스: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中 안은미, 현대무용가

17:00 종합 토론

예술작품으로서의 예술교육

좌장: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Programs

August 21, Mon, 2017 / DDP Academy Hall

13:00 Session 1. Evolution of Aesthetic Education

Registration and Workshop 1. Sign Making Workshop

Presentation 1. Artist as Teacher, Teacher as Learner

Taeyoon Choi, Artist/Teacher/Social Activist

Presentation 2. The Impact of Drama Education;
Iwaki Sogo High School and Otemon Gaku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Michiko Ishii. Drama teacher

Presentation 3. An Unfamiliar Look into the Familiar;

Saitama Frontage

Hansol Yoon, Theater director

15:00 Session 2. Expansion of Aesthetic Education

Reception and Workshop 2. Mixfruit Juice

Presentation 4. An invitation to Insufficient Pleasure;
A case of MDf(Maseok Dongne festival)
Mixrice, Artist Group

Presentation 5. Anthropology of Body;

Look into the history of life through dance

Performance: Dancing Grandmothers

Eunme Ahn, Dancer

17:00 Panel Discussion

Arts Education through Art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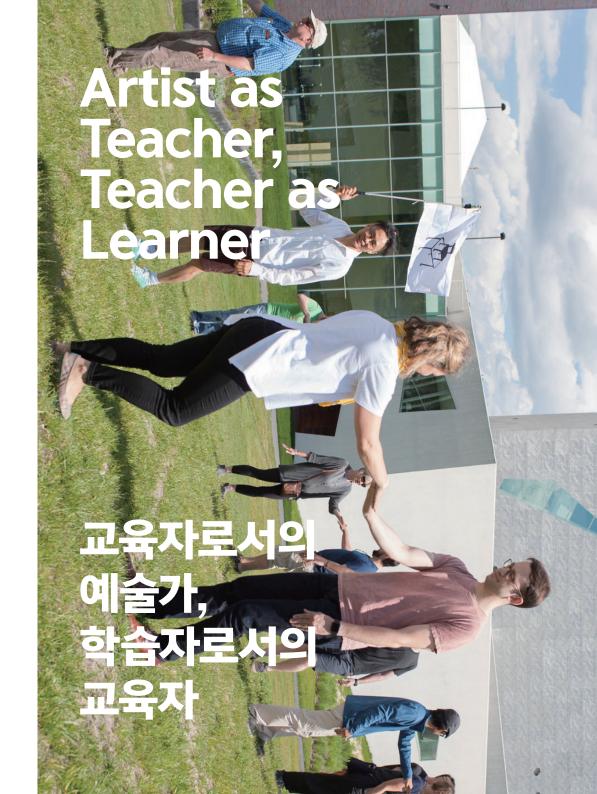
Moderator: Mihye Lim, Division Director of Arts in Education, SFAC

STS BEYOND RTS RTS EDUCATION 작가이자 교육자로 퍼포먼스, 전자장치, 드로잉과 스토리텔링을 수반하는 작업을 하며, 공공 공간에 개입을 시도하기도 한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 참여적 프로젝트와 대안적인 교육 활동도 선보여왔다. 아이빔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와 로어 맨해튼 문화위원회에서 레지던스 작가로 활동했다. 2013년 시적연산학교(School for poetic computation)를 공동 설립하여 운영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근래에는 장애와 정상의 벽을 '탈학습'하고 예술과 기술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태윤 Taeyoon Choi



Artist and educator based in New York and Seoul. His art practice involves performance, electronics, drawings and storytelling that often leads to intervention in public spaces. Choi collaborates with many professionals from various fields to realize socially engaged projects and alternative pedagogy. He was an artist in residence at Eyebeam Art and Technology Center and Lower Manhattan Cultural Council. Choi co-founded the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in 2013 where he continues to organize and teach. Recently, he is focusing on unlearning the wall of disability and normalcy, and enhancing accessibility and diversity within art and technology.



나에게 교육이란 나의 예술이 행동주의와 만나는 장소다.

For me, **teaching is** where my art meets activism.

예술가로서의 나는 테크놀로지와 서사를

테크놀로지와 서사를 가지고 작업한다. 공식적이며 관계적인 작업이다.

As an artist,

I work withtechnology and narrativeformal and relational projects.

행동가로서의 나는

개인적이면서 정치적인 것을 탐구한다. 실행과 실천이다.

As an activist,

I examine personal and political – practice and praxis.

교육자로서의 나는 가소성과 탄성 사이의 피드백을 만들어 낸다. 학습과 탈학습이다.

As an educator,

I create feedback between plastic and elastic – learning and unlearning.



How can we critique oppressive systems that create the sense of 'others' based on ability and legal status? What's kind of pedagogy can we experiment through alternative schools?

어떤 이의 능력과 법적 지위에 따라 배타적 감각을 만들어 내는 억압적인 체제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대안학교를 통해 어떤 교육방식을 실험해 볼 수 있을까?

How can we create a community among those who have nothing in common?

공통점이 전혀 없는 이들과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



Taeyoon Choi, Absence is Presence with Distance, Eyeo festival, 2017

By creating art, we can give form to our intentions, 예술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우리는 의도에 형식을 부여하고, contribute to making the world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세계를 만들어 간다. we want to live in.



지금, 행동가로서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Seek justice and beauty, two things that are never far apart

Taeyoon Choi, Absence is Presence with Distance, Eyeo festiva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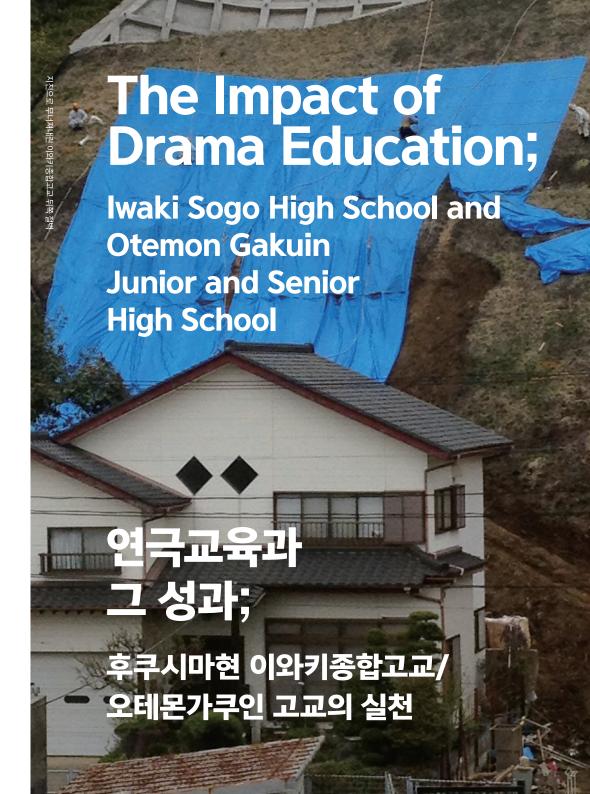


드라마 티처. 2003년부터 후쿠시마현 이와키종합고등학교에 연극수업을 만들었다. 학생들과 실제 현장에서 활약 중인 극작가, 연출가를 연결하여 수업 성과발표 공연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만든 작품 <블루 시트>(아메야 노리미즈 작/연출, 2013년)는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희곡상인 제58회 기시다 구니오 희곡상을 수상했다. 2014년부터는 오사카로 옮겨 이바라키시의 오테몬가쿠인중고등학교에 표현커뮤니케이션 코스를 만들고 표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시이 미치코 Michiko Ishii



A drama teacher, Ishii created and has led the drama program at Iwaki Sogo High School in Fukushima Prefecture since 2013. Ishii began to stage drama with students, in collaboration with professional playwrights and directors, to demonstrate their achievements. The result, <Blue Sheet>, written and directed by Norimizu Ameya in 2013, won the prestigious 58th Kishida Drama Award. Since moving to Osaka in 2014, Ishii has developed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courses at Otemon Gaku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and currently teaches expression.





타다 준노스케 연출 <2011년의 셰익스피어> 연습 광경



연극 수업(아웃리치 활동 발표)





아메야 노리미즈 연출 <블루 시트> 연습 . 우측에 보이는 것은 가설 교실이다

아메야라는 예술가는 '생명' 그 자체를 온전하게 고민하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자연의 순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진 후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고등학생' 이라는 사실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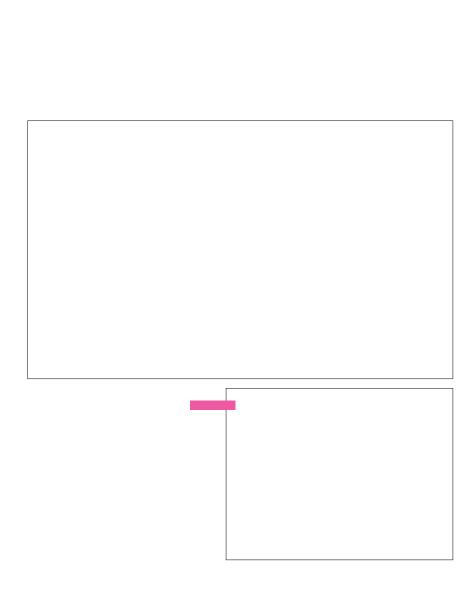
과도되게 반응하는 법 없이 '그저 거기에 있는 고등학생'으로 마주대해 주었습니다.

아메야는 배우인 학생들을 그 맑은 눈으로 지그시 관찰하고,

학생 한명 한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말을 엮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합숙소에 틀어박혀 독백 대본을 완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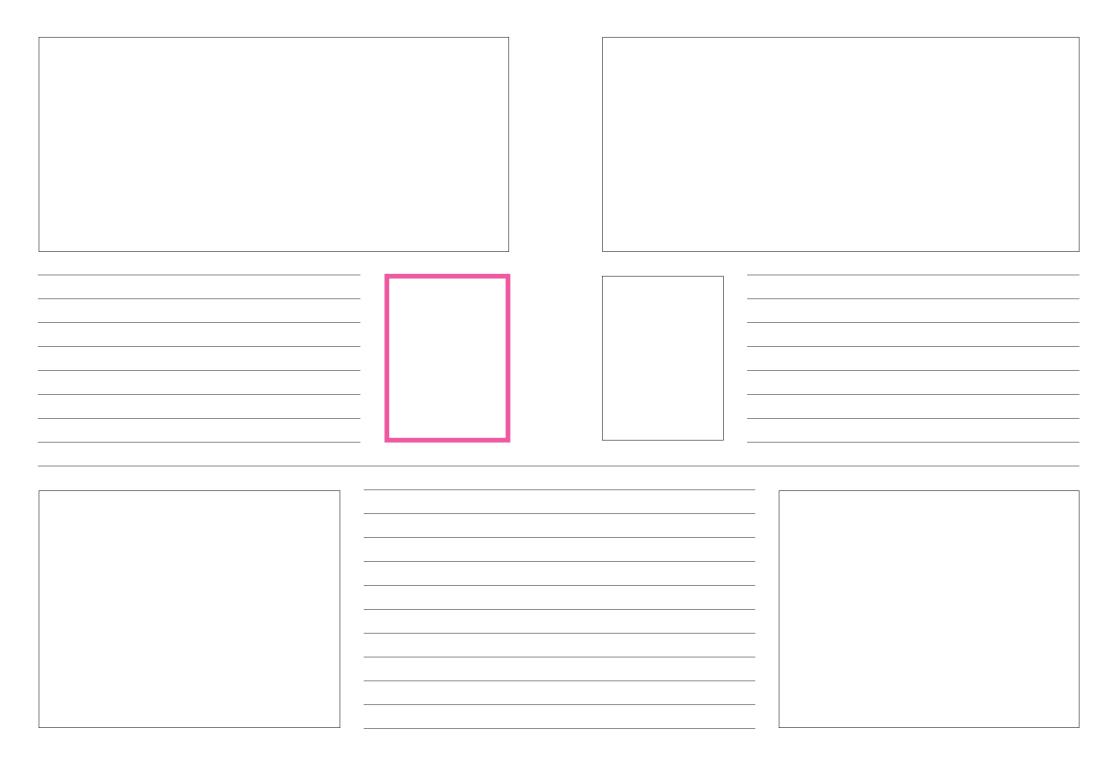
- 「고등학생을 살 만하게 하는 연극교육」 릿토샤, 2017



1		
1		
1		
1		
1		

始屋さんというアーティストは「生命」丸ごとを考えて、生きるのも死ぬのもすべて自然の循環として考えている人だと思います。だから、生徒たちが「震災後の福島いわきの高校生である」ということにも、過剰に反応することなく「ただそこにいる高校生」として向き合ってくれた。彼は俳優である生徒たちを、あの曇りのない目でじっと観察して、1人1人の生徒から生まれる言葉を紡いでいきました。学校の合宿所に泊まりこんで、モノローグの脚本を書き上げて下さいました。

- 「高校生が生きやすくなるための演劇教育」 立東舎、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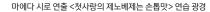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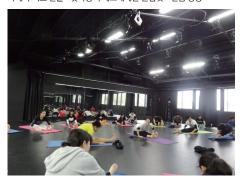
↑ 마에다 시로 연출 <첫사랑의 제노베제는 손톱맛> 무대 ↓



자기 몸을 단련하고, 몸은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 근력이 생기면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 「고등학생을 살 만하게 하는 연극교육」 릿토샤, 2017







타다 준노스케 연출 <2011년의 셰익스피어> 공연

	自分の身体を鍛え、身体は変化することを知ること。 身体と心はつながっているので、筋力がつけば心に もいい影響があること。
	- 「高校生が生きやすくなるための演劇教育」 立東舎、2017

제가 연극교육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일입니다. 각각의 다름을 흥미로워 하고,	 	
그 다름에서 새로운 인식을 발견하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		
그런 사람이 늘어난다면, 커뮤니티의 협동도		
원활해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고등학생을 살 만하게 하는 연극교육」, 릿토샤, 2017		

		私が演劇教育で目指す究極は、社会の中で、
		人と人とをつなげることができる人材を育成
		することです。それぞれの違いを面白がり、
		その違いから新たな認識を発見し、
	 	活かし合い、補い合う関係が築ける人材。そう
		いう人が増えていけば、コミュニティの恊働が
		円滑に回るようになると思うからです。
		- 「高校生が生きやすくなるための演劇教育」 立東舎、201

연극연출가, 극단 그린피그 대표.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교수.

- <안산순례길>(2015-17), <사이타마 프론티지>(2016), <나는야 연기왕>(2016),
- <국가-일본편>(2015), <치정>(2015), <이야기의 방식 노래의 방식-데모버전>(2014),
- <두뇌수술>(2012), <나는야 쎅스왕>(2011), <의붓기억-억압된 것들의 귀환>(2010) 등
- 전통적 연극 만들기의 틀을 깨는 작품들을 통해 다양한 미학적 실험과 관객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윤한솔

Hansol Yoon



A theater director, director of Green Pig, associate professor of the School of Theater and Film,

Dankook University. In his works < Camino de Ansan>(2015-17), < Saitama Frontage>(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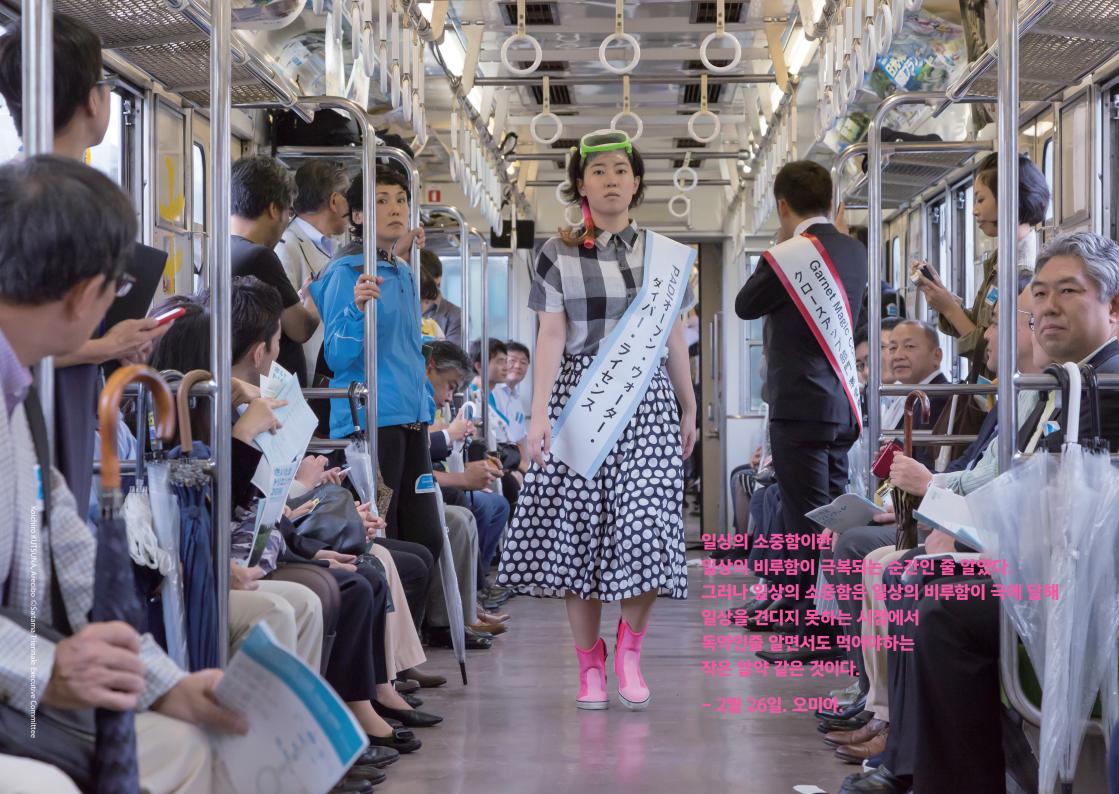
- <I Am the Acting King>(2016), <Nation-Vol.Japan>(2015), <Crime of Passion>(2015),
- <The way of singing, the way of storytelling-demo version>(2014), <Brain Surgery> (2012),
- <I Am the Sex King>(2011) and <Step Memories-Return of the Oppressed>(2010).

Yoon conducts experiments into the microscopic and seeks ways to encourage audience participation.



연출노트

hlolelm	द्याय ४८१ ०१पर देईमा	
	હાયાં ા હામ મુદ્રના ગામમાં આપા.	



ħ aa	than and the second stands and a second stands and second stands and second stands and second
2 71	हिए(यय) on अपने on meat ए. हिए on दिवार अपने on
	भ्रेतारे १६६०.
	મસ- પુષ્કાટ વૃદ્ધમ ા ભાગ
	પયેર ક્ષેપ ઘર્ષન દ્વેરામા મધ્ય મ
<u> </u>	
<u> </u>	
<u> </u>	
<u> </u>	
115	고박 비원특이 이니다 '고' 비원특, 고박 첫집이 이니다
2111	'2' 동자. 고양 육대에게 아니지 '2' 육대에
	દત હેલ તાર્ટ્ફનાત યુરતા લાગ રાયું
	ગામાના કાયાના પાર '2'રે એક્કેપાર કેલ
	ાર મેજાકાર ૧૫૧૫ નુજા ત્યું જ ૧૫ માન ૧૫ માન
	मिकिताल निर्मिश्चल गर्डलाल निर्मान गर्डला
	णिक्र ग्रह्, णिक्रा द्विसेट ग्रह,
	તારકળ કુંળુળ મુક્ટ ક્રમગ્રેક તાયુન મુક્
	014 701214 701 0LUZU 14795101214 7010.
1	





	ગાણિંગ શ્રેટ્ પાટ ગયેર ટયકારાષ્ટ
	14년 없이날
	公力能力の指言



믹스라이스는 예술문화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고 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 팀이다. 조지은, 양철모 작가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을 극복하고, 이들의 일상과 발언을 통해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으로 예술실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외국인 이주노동자, 활동가, 작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믹스라이스 MIXRICE



Mixrice is a project team researching and suggesting alternative ways of proceeding art and cultural activities. The 2 members of the group are Cho jieun, Yang chulmo, The team was created to overcome prejudice—formed as a result of mass media portrayals—toward immigrant workers, and to expand the scope of arts practice within society by giving these workers a voice and a chance to show their daily lives. Participants include immigrant workers, activists, and writers. Mixrice won the 'Korea Artist Prize 2016'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마석가구단지는 과거 한센인들의 공동체적 삶을 꾸려왔던 곳이다.
1980년대 자립기반인 농장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임대업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마석가구단지가 형성됐다. 마석가구단지는 논밭 위에 허가 없이 세워졌다.
서류에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일을 한다. 없는 장소에 없는 사람들이 삶을 꾸리고
있는 곳이 마석가구단지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알럼은 즐거움의 부족한 마석가구단지에
락페스티벌을 열었으면 하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 마석동네페스티벌을 만들게 된다.
생경한 곳에서 외부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벌이는 이상하고 괴상한 마을축제가
만들어진다.

Maseok Furniture Complex was home to a community of patients with Hansen's disease. In the 1980s, as they were unable to support themselves through farming, they began a leasing service. Maseok Furniture Complex was formed as a result. The complex was established on farmland without approval, and undocumented immigrant workers work there. Nonexistent people live their lives in a nonexistent place. Alam from Bangladesh dreamed of holding a rock festival inside the pleasureless Maseok Furniture Complex. Now, Maseok Dongne festival(MDf) has finally opened. This curious festival is held in a small, unfamiliar town and outsiders are welcome.



각 서

공공미술삼거리 대표 양철모는 2012년 10월 6일(토요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88-146번지 공장 옥상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지킨다.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보상과 사후 책임을 진다.

- 1. 공장 옥상 및 그 주변의 사용에 있어, 인적, 물적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상한다.
- 2. 행사 후 모든 쓰레기와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조치하며, 만약 미 조치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
- 3. 행사 진행에 있어, 주민들과 이주노동자를 배려하고, 어떠한 비윤리적 행위나 언사를 할 수 없다.
- 4.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나, 성, 인종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삼간다.

2012년 10월 4일

공공미술 삼거리 대표 양철모 (인)

		•	
1			
2.	_		
3			
4.	_		
		 -	
		(인)	





And in this place, anyone might disappear.

Natives disappear because of redevelopment.

Immigrants disappear because of crackdowns.

Let us think about what will be left after everything has disappeared.

I think, memory and recollection will remain.

- A letter from Alam

그리고 이곳은 누구든 언젠가 사라질 수 있는 곳입니다. 원주민들은 재개발 때문에 사라질 것이고 이주민들은 단속 때문에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남아 있는 것이 무얼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추억과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알럼의 편지 中



The time we had with strangers on a factory rooftop at Maseok Furniture Complex seemed to flow into the spac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poverty suddenly shared, and we came face-to-face with existence. Somebody called it a midsummer night's dream.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마석가구단지 공장 옥상에서 가진 시간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시간으로 흘러 들어와, 불현듯 가난을 나누어 가지고는, 실재와 만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여름밤의 꿈이라고 누군가 불렀지요.



관습의 틀을 깨는 도발적 춤을 선보이는 현대무용가. 대구시립무용단 단장과 하이서울페스티벌에술감독을 역임했다. 2015년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무용계에 파격을 선사한바 있다. 안은미컴퍼니는 한국 개인 무용단 최초로 유럽 6개국 단독 초청공연 개최와 한국 최초로 해외객원 안무가 초청, 프랑스/독일 아르떼 채널 작품 방영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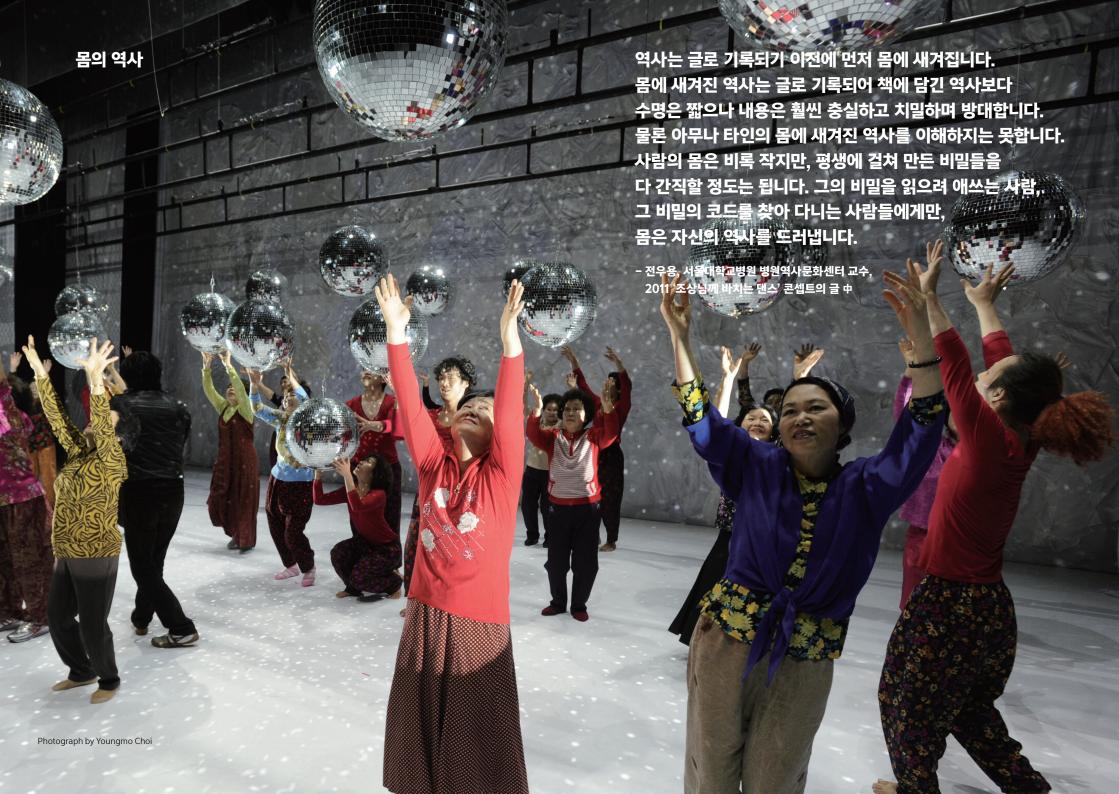
안은미 Eunme A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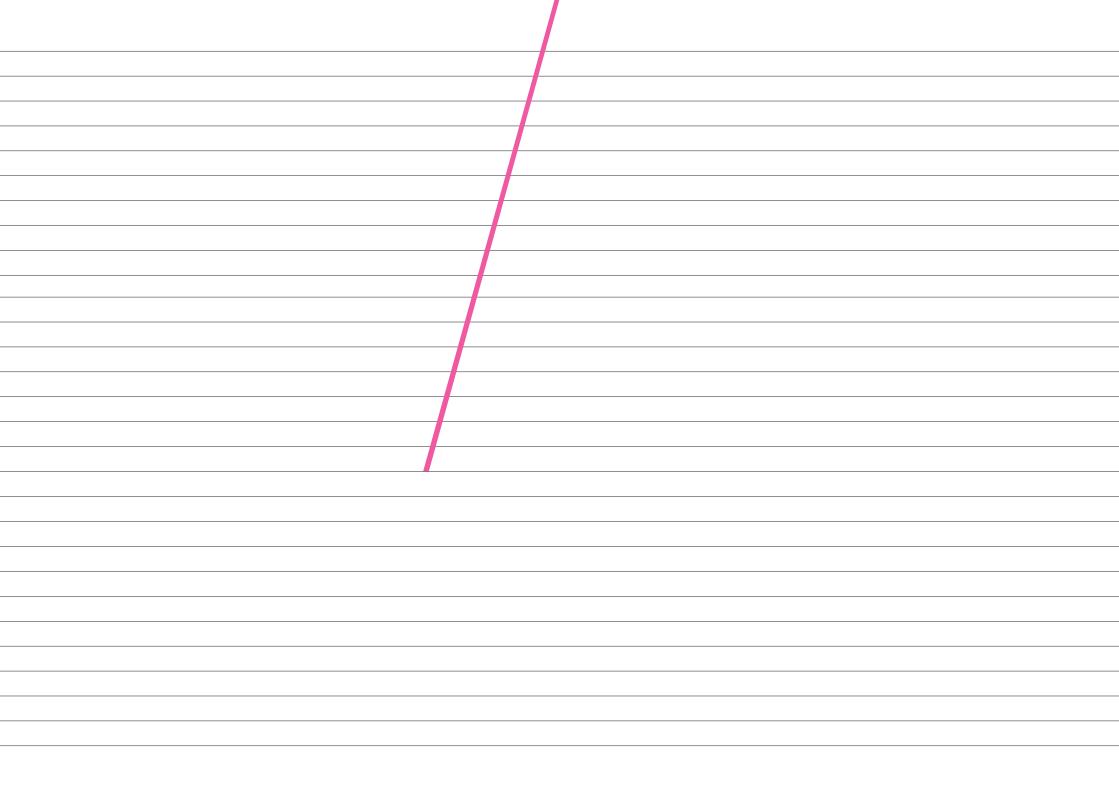
A modern dancer, Ahn performs a provocative dance to break away from customs. She was the director of the Daegu City Modern Dance Company and the art director of Hi-Seoul Festival.

Her performance, titled <Dancing Grandmothers>, has shocked France and the European dance community. Eun Me Ahn Company has been successful with various performances both at home and abroad, such as holding a solo invitation show in six countries in Europe for the first time as a Korean dancer. Her works were broadcasted on French and German Arte Cha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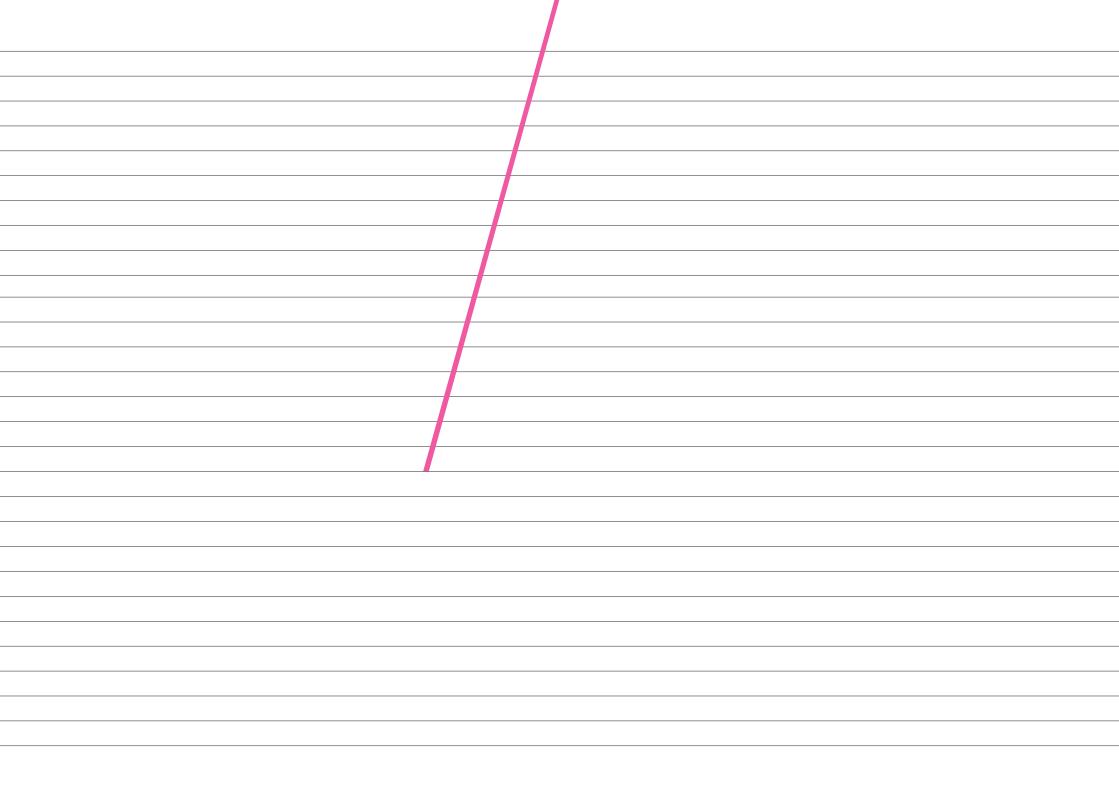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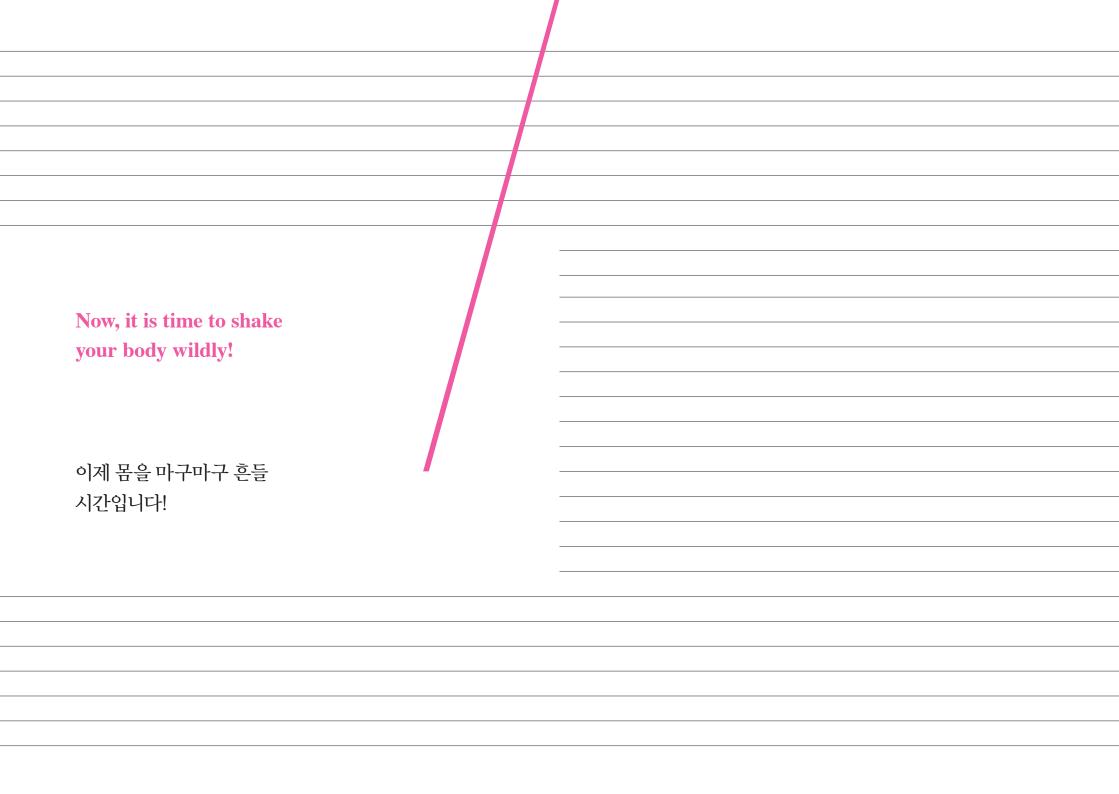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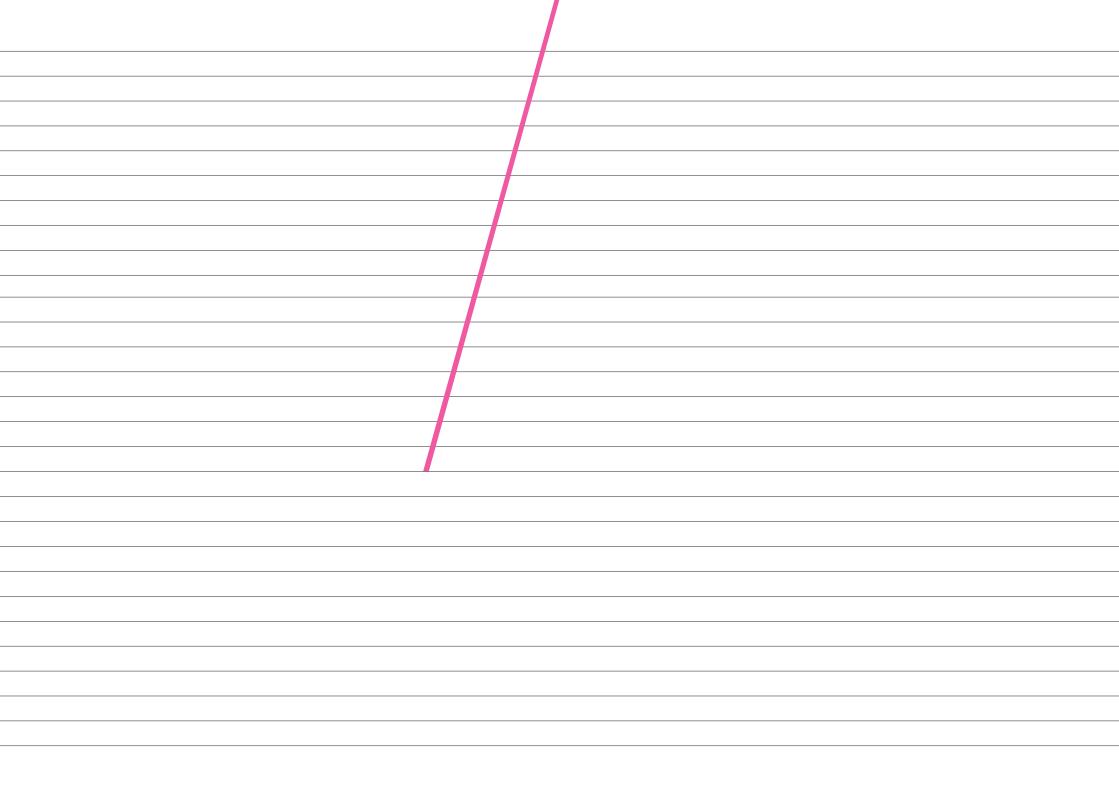
Arts education is not a process of rote teaching, but a process of recognition and change through experience. 예술교육은 무엇인가를 주입해서 암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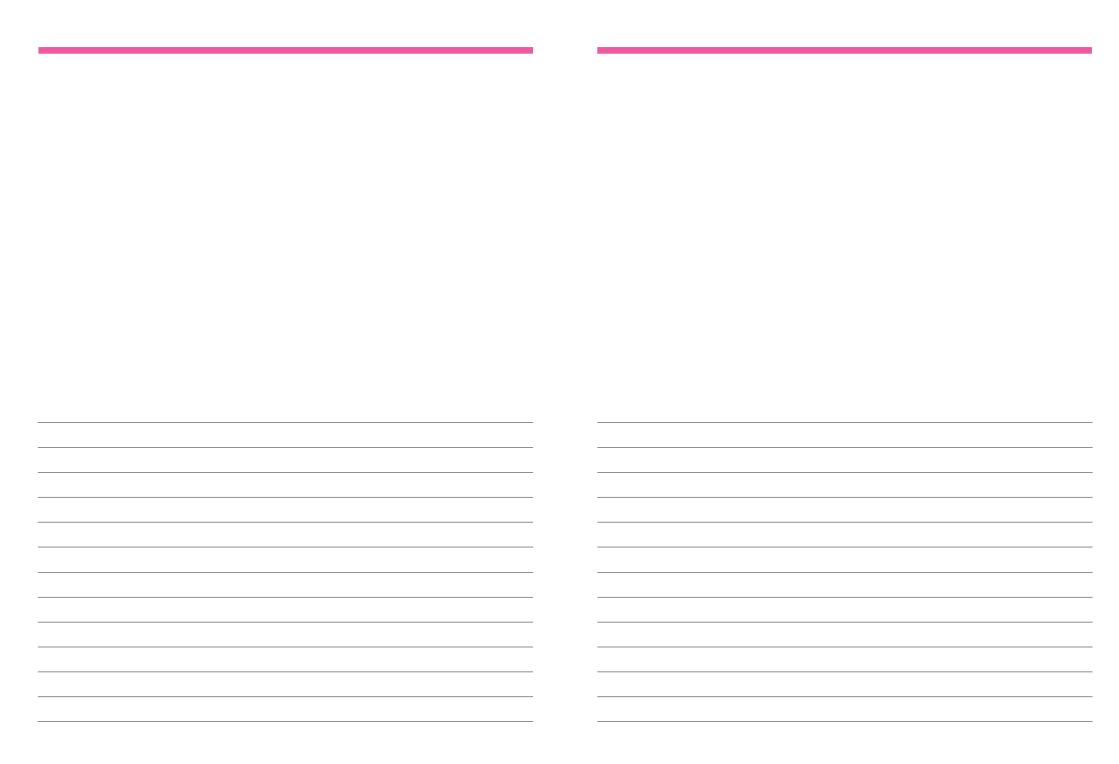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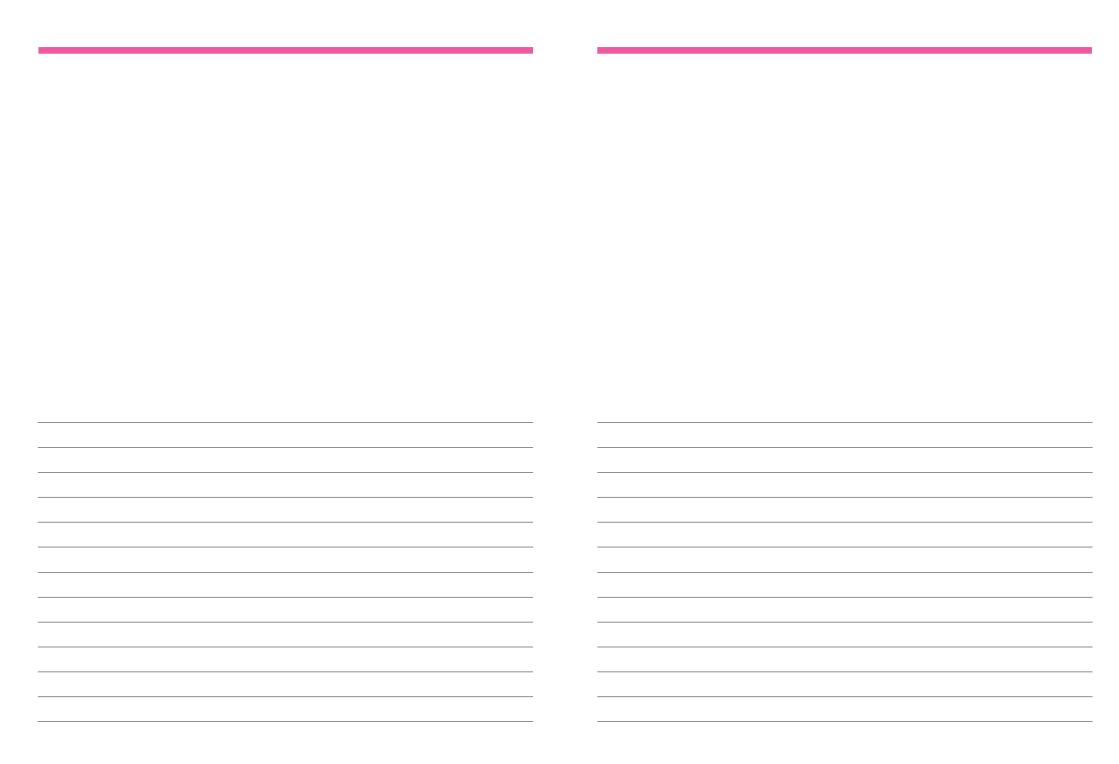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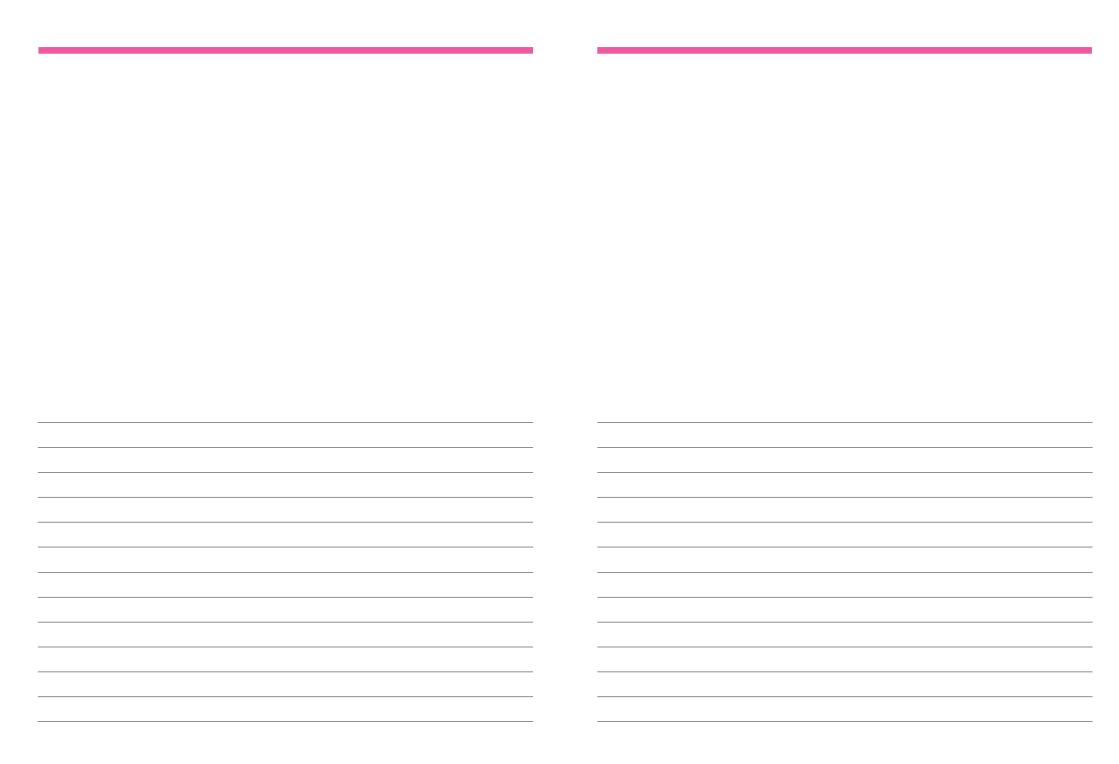












We must try to comprehend how each of us, unique persons with unique life histories, can move inside works created by quite different human beings and actually discover ourselves there.	독특한 삶의 역사를 지닌 한 개인은 자신과는 상당히 다른 사람이 창조한 작품의 내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Maxine Greene, [「] Variations on a blue guitar」, 2001	- 맥신 그린, 「블루기타 변주곡」, 2001



humans invented the arts to serve	인간은 표현의 방식으로서 예술을 창조했다
experessive functions	하지만 예술은 발견 또한 가능케 했다.
But the arts also make discovery possible.	
– Elliot Eisner, [↑] The Misunderstood Role of the Arts in Human Development」, 1992	- 엘리엇 아이즈너, 「인류 발전에서 예술 역할의 오해」, 1992





서울창의예술교육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 모두가 예술을 통하여 미래의 경쟁력인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배우며, 성장하는 미적체험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예술적 상상력을 극대화한 개인의 미적체험을 통해 인성의 풍요로운 발전은 물론 삶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 서울창의예술교육은 예술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지원합니다.

학교교육과 예술

- •예술로 돌봄
- •예술로 플러스
- •예술로 함께
- •서울형 예술가교사(TA)
- •문화예술중심 창의감성학교

예술가교사 양성

- •서울창의예술교육아카데미 AiE
- •서울형 예술가교사 역량강화 아카데미
-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 •서울문화재단 교과연계워크숍

일상과 예술

- •서울시민예술대학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교육 거버넌스

- •서울창의예술교육 학술행사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총서
-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예술교육 공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예술교육정보자료관

Seoul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SEA)

SEA encompasses all of SFAC's arts in education and aesthetic engagement programs. SEA is based on the belief that aesthetic experiences and inspire fundamental changes in people's live through increased sensibility, empathy and critical thinking. SEA pursues an experience-oriented and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 to encourage a deeper appreciation of the arts and the aesthetic in everyday life, and to open people up to new possibilities in learning by sharing artistic processes of thought and practive. Through the varied programs of SEA, SFAC plays a leading role in the innovation of arts learning and engagement both within Seoul and across Korea.

Arts in Schools

- Afterschool Arts Care
- Arts Plus
- Arts together
- SFAC's Teaching Artists(TA)
- · Creative Emotion School with
- Arts and Culture

(in collaboration with SMOE)

Arts in Life

- Seoul Lifelong Schools of Arts
- Localized Arts and Culture Education Support Program
- ·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

Creative Space for Arts Education

- · Gwanak Children's Art Playground
- · West-Seoul Arts Center for Learning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Teaching Artists

- · Academy for Arts in Education(AiE)
- SFAC TA training program
- · Seoul Educators Workshop(SEW) in alliance with Lincoln Center Education
- SFAC's Arts Integration Curriculum Workshop

SEA Governance

- Arts education academic event
- SFAC Aesthetic Education Pulication Series
- · Arts and Education Exchange and network construction
- · Seoul Informational Resource Center for Arts and Education

제3회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엄

 주관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기획
 임미혜 서명구 이고은

 운영지원
 홍우정

 일본세션 협력 기획
 고주영

 영문번역
 최현진

 디자인
 인디엔피

<u>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u>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8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2층

www.sfac.or.kr

www.facebook.com/artsedu

이 책에 수록된 글의 저작권은 해당 저자와 서울문화재단에 있습니다.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예술로 더 새롭게, 문화로 다 즐겁게

